

2022년 05월 2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7편 3~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180(통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5장 18절(신약p.315)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 말씀선포 /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게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순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강권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의 원문 헬라어는 “플레루스테 엔 프 뉴마티”로서 이 정확한 뜻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듯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성령의 충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1.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 안에는 주의 뜻을 온전히 알고 바로 이해하며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바른 지식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이해를 낳고, 이해함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있는 지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성도가 아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며,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도의 삶에 가득할 때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고 말씀하심과 같이 성도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이 시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심은,

2.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말씀 충만을 입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주제이고, 주인공이십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이란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 봉사, 교육, 그리고 친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의 직분과 직책은 명예직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성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3. 오직 예배의 회복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알고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통하여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수로 충만하여 더욱 예수를 사랑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 말씀 충만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며 더욱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쳤던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말씀으로 충

만하여 지고, 예수로 충만해 지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47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고, 이겨냈으며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회복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성도는 다시 깨어 일어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공적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쳐지지 말고 폐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주간은 오순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 변화와 부흥, 평안과 안위, 기쁨과 행복, 자녀의 형통함 등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함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더욱 갈급한 심정, 상한 심정으로 내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7(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 폐 회 / 주기도문